

경상북도 장애인 좌식배구 장종만 선수 최초 공기업 채용

등록 2020.05.10 19:34:20  뉴영남매일



경상북도장애인배구협회의 소속 선수인 장종만(사진)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

좌식배구 실업 선수로 공기업에 채용됐다. 김세복 회장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기업에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로 채용된 장종만 선수의 노고를 치하했다.

김 회장은 장종만 선수의 공기업 채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좌식배구 선수의 공기업 채용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. 또한 이제 막 출발 선상에 서게 된 경상북도 장애인 좌식배구팀의 실업팀 창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.

장종만 선수는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로 활동하면서, 수차례의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좌식배구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의 보유자 일뿐만 아니라, 경북 대표선수로 출전한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, 2006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9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(장애인아시안게임)에 참가해 4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우수 선수이며, 대한민국에서 자타 공인 최고 선수 중 한명이다.

한편 좌식배구는 1953년 네덜란드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스포츠클럽이 생겨 최초의 공식 국제경기로 1979년 네덜란드 안헨에서 개최됐다.

1988년에는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국내 소개 및 보급돼 이후 활성화 되었다.

2006년 제9회 FESPIC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12개국 중 4위를 차지했으며,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에서 4위,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5위, 여자4위를 차지한 저력도 있다.

채동규 기자